

한민족과학기술자교류협력방안

우리겨레의 번영한 삶은 힘을 모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姜 貴 吉

中國조선족과학가협회회장
연변대학교 교수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는 과학기술경쟁이 날로 치열하여 가고 선진국들의 과학기술 보호장벽이 날로 높이 쌓여지고 있는 오늘 매우 적절한 시기에 창립된 것이다.

겨레사이에 과학기술 보호장벽을 쌓을 필요가 없다. 마땅히 국경을 넘어 서로 배우고 서로 도와 첨단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민족의 과학기술발전을 가속화시켜 경제를 진흥시키는것만이 국제적경쟁속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 할 수 있으며 7천만 겨레가 갈망하는 통일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990년 서울에서 있었던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와 91년 중국 연길에서의 「91 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를 빌어 이념과 국경을 초월하여 많은 최신의 과학 기술을 교류할 수 있었다. 학자간의 우의를 증진시킴과 아울러 이를 토대로 삼아 부동한 사회체제를 불문하고 겨레사이에 상호기술협력, 공동자원개발도 이미 첫보를 내디디게 되었다.

이번에 민족경제진흥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

력활동을 활성화할 수있는 「세계한민족 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의 창립은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적합한 기구로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조선족과학가협회」는 1989년 7월21일 설립된 이래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간 각 대학, 연구소, 설계원등지의 의학, 농림, 지질, 조경등 산업분야에서 중추적역할을 하고 있는 부교수, 고급공정사 이상의 고급과학기술자 1080명이 모여 구성된 단체이다. 북경, 천진, 심양, 장춘, 할빈, 가목사, 길림, 연변등 각곳에서 지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또 화학 화공, 의약, 응용물리, 응용수학, 전자계산기, 지질지리, 원림조경, 농림, 재료, 기술정보, 건축, 섬유, 체육등 13개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각 지구위원회에서는 지방 실제와 민족경제 건설의 수요에 따라 인력배양, 기술자문, 기술협력, 연구개발등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협회에서는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북한, 한국, 영국, 불란서, 러시아등의 조선인

과학기술자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더욱이 실질적인 공동개발 사업 즉 훈춘개발, 모아산 공동개발 등으로 촉진하고 있다.

1990년 전후로 소규모적인 약학, 원림조경, 전자계산기 등의 분야에서 국제학술회의를 연길에서 개최하였고 1990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에 10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협회가 주관하여 조직한 규모가 제일 큰 학술교류대회로서는 지난해 8월 19~24일 열린 「'91 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를 들수 있다. 역사적 의의가 깊은 이 회의는 성과가 아주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고 회원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재단을 비롯한 한국 각 학회의 물심양면의 지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총연맹을 비롯한 각대학, 연구단체의 협력 및 세계 각국의 한국과학기술자들의 열정적인 지지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협회는 어린애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하에서 일정한 규모의 활동을 조직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곡절과 애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날 협회 설립과 활동을 회고할 때 과학기술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 형세에 부합되고 개혁·개방 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 중국의 정책에도 부합된 것으로 믿고 있는 전체회원은 굳센 결의를 갖고 있다. 우리들은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전세계 한민족과학기술자들과 긴밀히 단합하여 민족과학의 발전과 경제진흥을 위해 헌신코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은 이자리를 빌어 몇 가지 제안을 내어 놓고 협의회의 앞으로의 발전과 「중국 조선족과학가협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첫째 : 세계적인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민족이 선진대열에 진입하는데에는 첨단기술을 재빨리 습득하여 산업화시킴에 있다고 본다. 전세계 우리민족 과학기술자들의 실태를 잘 파악하여 그들의 기술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는 전제하에 몇가지 구체적인 기술협력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연구협력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 중국과 같은 발전도상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해 알맞는 선진기술도입과 기술협력사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더욱이 자체의 힘으로 경제효율을 높이도록 조건을 마련하는데 힘써 주기를 부탁한다.

셋째 :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후세 대의 과학기술인재배양이 가장 중요한 백년대계로 생각되는바 후진국에 살고 있는 젊은 우리 동포들이 발전된 나라에서 과학기술을 배울수 있도록 조직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

넷째 : 일부 발전도상의 나라의 형편을 보면 일시적이나마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경제토대가 빈약하다. 이런 실정을 참작하여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겨레간의 개혁·개방이 빨리 촉진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공헌도 크게 이룩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협의회에서는 상술한 몇가지 제안 즉 첨단기술 공동연구, 기술접수와 기업협력 촉진, 인력배양, 학술교류, 선진설비도입 등이 우리 협회의 주요한 사업으로 이루어 지도록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의회 사무국장소는 서울 혹은 평양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과학기술 용어통일팀을 구성하여 과학기술용어사전을 편찬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93년도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는 평양에서 개최함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과학기술이 한나라의 국력을 결정하고 민족의 존망을 좌우하는 오늘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의 창립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